

「기획」 3.11과 4.16

나로부터 시작해 나에게로 향하는 나의 운동

홍은진

노들장애인아학

partisan98@hanmail.net

2014년 야학 상근 활동을 그만두는 순간 기본소득 지지자가 되었다. 도서관에 앉아 멍 때리며 일기 쓸 때가 제일 행복하다. 데모 잘하는 사람을 좋아해서 구교현과 결혼했는데 '테러방지법'이 통과돼서 걱정이 많다.

노들, 삶과 운동의 분리에 맞서다

2001년 방황하던 스물세 살에 노들야학을 처음 만났다. 그곳에서 만난 장애인의 삶은 충격적이었다. 그런데 그 충격은 장애인의 열악한 삶 그 자체에서가 아니라 야학 사람들이 그것을 ‘문제’라고 말한다는 데서 왔을 것이다. 내가 자라 온 세상에선 누구도 그것을 ‘문제’라고 하지 않았다. 나중에 깨달은 것이지만 어떤 문제를 ‘문제’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은 그 현실을 해결할 의지가 있거나 최소한 직면할 용기가 있는 사람이다. 나는 20년 만에 외출했다는 사람, 바다를 한 번도 못 봤다는 사람, 언니 결혼식에 초대받지 못했다는 사람, 공통적으로는 그것이 온통 ‘문제’라고 말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신입 교사 교육을 받았다.

당시 나에게 야학의 교육적 영향력이라는 것은 마치 책으로만 영어를 공부하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미국에 떨어진 상황만큼이나 폭발적인 것이었다. 그러나 자신에게 방황할 시간을 더 주고 싶어 찾아간 곳이었는데 그곳은 곧바로 현장이었다. 고리타분한 문법이나 이해하기 어려운 문학적 수사 따위는 없었다. 학생들은 지나가듯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다. “나도 대학 가고 싶어.” “나도 돈 벌고 싶다.” 그 말 뒤에는 모두 ‘너처럼’이 생략되어 있었다. 교사들은 어떻게든 자신만의 답을 마련해야 했다.

그들은 내가 대학에서 보았던 열혈 운동권도, 대단한 교육학도도 아니었으나 대부분이 ‘나침반의 펴고 있는 여윈 바늘’처럼 진지하고 치열한 사람들이었으므로 그 언어는 생생하고 구체적이며 섬세했다. 어마어마한 지적 쾌감과 정서적 해방감으로 나를 흥분시키던 그 시절의 노들은 ‘새로운 정보’가 아니라 매일매일 나의 세계를 와르르 무너뜨리며 다가온 ‘전혀 새로운 세계’였다.

노들야학이 ‘투쟁적’이라는 소문을 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노들이 차별받은

사람들의 공간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하지만 그것은 일부만 옳다. 수십 년 차별받은 사람들은 가난하고 교육 수준도 낮다. 그러니 계속 차별받으며 살아가는 것이 더 자연스럽다. 앞서 말한 것처럼 문제를 '문제'라고 말하는 것은 그 문제와 싸울 의지가 있을 때이다. 그렇지 않다면 '그것 참 안타까운 일이네요' 하는 표현만 적절하게 구사할 수 있어도 얼마든지 그 관계는 문제없이 지속될 수 있다. 그것은 노들 안에서조차 마찬가지여서 개교 이래 두 입장은 물과 기름처럼 겹돌았다. 그러다가 내가 처음 야학에 왔던 2001년에는 그것이 습관적 대립의 양상을 벗어나 '교육'과 '운동'이라는 이름으로 격렬하게 충돌하고 있었다.

2001년 1월 오이도역에서 장애인이 리프트를 타다가 추락하여 사망하는 사건이 일어났고, 2주 후 노들야학은 장애인 이동권을 외치며 서울역 철로를 점거하고 지하철을 멈춰 세웠다. 이것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투쟁의 불꽃을 점화하는 사건이었다. 야학의 몇몇 사람들은 그 불꽃을 본격적인 이동권투쟁으로 이어 가고 싶었다. 그러자 내부의 저항 역시 거세었다. 날선 비판과 응어리진 미움이 곳곳에서 부딪혔다. 한쪽에선 김정고시 위주의 수업이 학생들의 삶을 배신한다고 비판했고, 한쪽에선 명분만 쫓는 투쟁이 그러하다고 맞섰다.

내가 노들에 마음을 빼앗긴 장면 중 하나가 바로 이 싸움이였다. 나는 어디에서도 그토록 치열하게 싸우는 사람들을 본 적이 없었는데 그들은 진심으로 고통스러워하면서도 싸움을 멈추지 않았고, 자기 안의 긴장과 분열을 견뎌 냈으며 놀랍게도 서로를 믿고 있었다. 그것은 그들이 '어떤 가치도 학생들의 일상을 지키는 것에 우선할 수 없음'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이었다. 가장 치열한 '운동파' 교사와 '교육파' 교사는 학생들의 삶에 가장 밀착한 사람들이었고 그들의 삶을 진심으로 걱정했으며 자신만의 방식으로 그것을 실천했다.

내가 야학에 처음 왔을 때는 이 싸움의 후반전이 막 시작될 무렵이었고 어느

날 정신을 차리고 보니 나는 이 싸움의 한가운데에 끼어 참전을 종용받고 있었다. 그러나 이렇다 할 경험도 없고 각 '파'들과 얽힌 인간적 관계도 없는 나 같은 사람이 어떤 입장을 선택하기란 그리 쉬운 일이 아니었다. 양쪽 모두 진심으로 학생들의 삶을 걱정하고 있는 듯 보였다. 게다가 문제를 더 어렵게 만드는 것은 '교육파'의 누구도 이동권투쟁에 대해 '틀렸다'고 말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대신 '야학은 교육 공간이므로 교육 활동에 소홀해선 안 된다'고 했고, 그러니 '운동은 상근자 혹은 이동권연대를 중심으로 하고, 교사는 교육에 집중하자'고 말했다. 그것이 운동도 더 잘하고 교육도 더 잘하는 길이라는 것이었다. 시간이 흘러 되돌아보건대, '교육파'는 그들이 의도했던 하지 않았건 간에 결과적으로는 '현장'으로부터 '운동'을 분리해 내고 싶어 했다.

'운동성'이란 존재를 끊임없이 불편하게 만든다. 긴장을 건디지 못하는 현장은 자신의 몸에서 운동을 밀어내고, 운동 역시 안전한 공간을 따로 확보하는 길을 선택한다. 그렇게 삶은 운동성을 잃고, 운동은 삶이라는 육체성을 잃는다. 그러나 당시의 '운동파' 교사들은 그것이 몇몇 활동가 혹은 특정 단체에 위임할 수 없는 성질의 것이며, 이 문제의 당사자인 노들이 직접 자신의 삶 속에서 실천해야 한다는 주장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다.

그리하여 '교육이란 무엇이고 운동이란 어떠한가' 하는 논의가 1년 이상 이어졌고, 물과 기름처럼 외따로 존재하던 교육과 운동은 이 시기를 통과하며 역동적으로 뒤섞이게 된다. 그 결과는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투쟁'을 '실천' 전체로 고정시키고 '수업'을 '교육' 전체로 대치시키는 것, 그리하여 교육과 운동에 냉소와 냉담을 이입시키는 모든 관성적 교육과 운동에 반대한다.' 그 치열했던 과정은 바깥을 향해 외치는 '이동권투쟁'과는 성격이 완전히 다른 노들의 자기투쟁이었다. 자신의 현장에서 운동을 분리하려는 움직임에 맞서 싸운 것이고, '운

동'과 '운동하지 않음'의 평화적 공존을 끝낸 것이다.

그 시절 나는 노들이 세상을 바꿀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았는데, 그것은 단지 노들이 '투쟁적이어서'가 아니었다. 어떤 순간에도 '교육과 운동이 무엇인가' 하는 질문을 놓치지 않을 거라는 믿음, 다양성이란 이름 아래 우리 안의 무책임을 긍정하고 차별에 침묵하지 않을 거라는 믿음, 그리고 끊임없이 생각을 나누고 논쟁하는 자기 싸움을 멈추지 않을 거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다.

저항은 어떻게 시작되는가

2003년 상근 활동가가 되었다. '야학이 죽을 만큼 좋아서 평생 하고 싶다'고 말하던 나는 몇 년 후 깨달았다. '이걸 평생하려면 죽을 만큼 힘들겠구나.' 학생들의 민원은 순번 대기표를 나눠 줘야 할 만큼 끝이 없었고 그 내용도 화장실 활동보조에서부터 가족이 자신을 시설에 보내려 하니 막아 달라는 것까지 다양하기도 했다. 학생들의 삶은 매일매일 '처리'해야 할 일상이 되었다. 늘 무언가를 설명하고 제안하고 설득하고 결정하고 점검하고 빈자리를 채우는 활동은 해도 해도 끝나지 않았다.

장애인의 삶이 열악할수록 그 운동은 숨 가쁘게 빠른 속도로 달려갔고, 공동체가 커질수록 상근자들의 자율적 영역은 좁아졌다. 당위가 온몸을 짓누르고 있었으므로 '노들에 최적화된 인간형'이었던 나는 '문제'가 될 만한 것들을 알아서 걸러냈다. 어디까지가 나이고 어디부터가 노들인지 구분되지 않는 생활, 나에게 노들은 좋은 삶든 99.9%였다. 노들을 뺀다면 좋은 것도 싫은 것도 없는, 나는 욕망 없는 존재가 되어 있었다.

야학을 하는 가장 큰 즐거움도 사람이었지만 야학 하는 가장 큰 괴로움도 사람이었다. 많은 사람들이 떠났고 나는 남았다. 그들이 떠난 자리엔 그들이 야학에

대해 쏟아 놓고 간 비판들만 남아 나를 찢었다. 때론 온갖 상소리를 하며 싸우는 경찰이나 공무원보다 곁에 있는 동지들이 나를 더 모멸했고, 나 역시 그랬다. 언제 부터인가 나는 늘 지쳐 있었고, 억울했고, 화가 나 있었다. 노들을 떠나겠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으나 실천할 자신은 없었으므로 나는 내 안에 차 있는 온갖 미움과 피로, 죄책감을 견디느라 많은 에너지를 써야 했다.

그 후 안식년을 가졌고, 치유 프로그램을 찾아다니고, 명상을 배웠다. 스트레스를 피하고 부정적 감정들을 가라앉히는 방법을 배운 후 드디어 평화가 찾아왔으나 나는 곧 깨달았다. 내가 누군가를 ‘진심으로’ 조직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어떤 일의 의미를 공유하고 같이 하자고 손을 내미는 것이 아니라 그저 회의에서 결정된 내용을 기계적으로 소통할 뿐이었다. 의미만 남고 재미는 사라진 생활 속에서 나는 무력해져 있었다. 노들이 싸우는 곳에 나도 있었으나 그저 엄마 뱃속의 갱거루처럼 수동적이었다. 내 나침반의 바늘이 떨고 있지 않았다. 2012년 나는 노들을 떠나기로 결심했다. 힘들어서가 아니라, 힘들지 않아서. 야학을 처음 만났을 때의 그 요동치는 에너지가 그리웠다.

야학 활동의 마지막 해, 나는 노들의 20년 역사를 정리하기로 했다. 내가 보고 들은 것을 기록하고 싶은 마음, 남은 사람들에게 힘이 되는 이야기를 해 주고픈 마음으로 시작한 일이었다. 그런데 뜻밖에 그 일은 나에게 예상치 못했던 떨림을 선물했는데, 말하자면 ‘저항하는 자’들의 경이에 눈뜬 것이었다.

1999년 야학 학생 이규식은 혜화역에서 리프트 추락 사고를 당했고, 야학은 지하철공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1년간의 법정 공방 끝에 이규식이 승소하는데, 모두가 승리감에 취해 있을 때 누군가 이렇게 말하는 것이다. ‘이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잊지 말자. 우리에게 세상 모든 길을 갈 수 있는 당연한 권리가 있다.’ 그리고 반년 후, 오이도역에서 장애인 추락 참사가 발생했고 노들은 지하철

철로를 점거하는 극적인 투쟁을 펼치며 이동권투쟁의 불꽃을 쏘아 올렸다.

2001년 미국에서 장애인 자립생활이념이 처음 도입되었을 때, 책 속에서 배운 것을 자기 삶 속에 실천하고 싶었던 이규식은 야산에 다 쓰러져 가는 판잣집을 개조해 혼자 살아 보기로 한다. 책 속에 나오는 이동권도 없고, 활동보조서비스도 없었지만 그는 ‘살면서 그때처럼 가슴이 부풀었던 적이 없었다’고 했다. 최진영은 ‘중증장애인의 힘으로 차별에 맞서고 세상을 변혁하라’는 그 이념이 듣기만 해도 황홀했다. 그러나 2년 후 시설민주화투쟁이 벌어졌을 때 그녀는 자신에게 자립생활이념을 가르쳤던 선생님들에게 폭력적으로 짓밟혔다. 이때의 경험에 대해 그녀는 이렇게 말했다. ‘배운 대로 실천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권력에 맞서 싸우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뼈가 저리도록 처절하게 느꼈다. 그래서 투쟁하는 사람들의 곁을 떠날 수 없다.’ 2007년 모두를 놀라게 했던 활동보조서비스 제도화의 성과는 바로 이들이 만들어 낸 것이었다.

경기 김포 석암베데스다요양원의 폭력과 비리 문제가 터졌던 2008년, 그 안에 살고 있던 장애인들과 바깥의 인권활동가들은 1년간 함께 싸웠고 결국 운영진을 모두 몰아내는 데 성공했다. 이때 활동가 김정하는 비리에 맞서 싸웠지만 여전히 시설 안에서 살아야 하는 장애인들을 찾아가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이제 시설에서 나가셔야죠. 그런데 지금 바깥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그걸 만드는 싸움을 해 봅시다. 여러분이 결의해 주시면 우리도 끝까지 가 보겠습니다.” 그 자리에서 여덟 명이 그녀의 손을 잡았고 그해 여름, 두 달간의 노숙 농성을 통해 그들은 ‘탈시설’이라는 새로운 길을 열었다.

무수한 기록들 속에서 저 말들을 만나는 순간 나는 눈물이 쑥 솟아올랐다. 수백 일의 농성과 단식, 점거와 식발, 수년간의 시행착오 끝에 법을 만들고 지하철을 바꾸고, 저상버스를 도입하고, 활동보조서비스를 제도화하고, 탈시설의 길을 열어

나간 그 뜨거웠던 투쟁들을 따라가면 그 끝엔 저렇게 작고 반짝이는 말들이 있었다. 가슴이 뛰고, 잊지 말자고 다짐하고, 너의 손을 놓지 않겠다고 말하고, 다시 한번 힘을 내 보자고 일어서는 순간들이 있었다. 그 순간, 인간이란 얼마나 멋있는 존재인가.

모든 싸움은 그곳에서 시작되었다. 저 말들의 이동을 따라 저항이 조직된다. 우리가 이루어 낸 것들은 실로 거대한 혁명이었으나 그것을 가능케 한 비밀은 그저 수많은 하루하루였다. 떨림과 다짐과 믿음과 약속을 공유하는 관계를 따라 불씨가 지쳐지고 불꽃으로 터져 나오며, 다시 한 사람 한 사람의 불길을 따라 들불처럼 번져 가는 것이다. 야학의 20년사 정리가 마무리되었을 때, 나는 이 사실을 깨달았다는 것만으로도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기분이었다. 마치 어느 봄 여린 새싹이 언 땅을 뚫고 나오는 경이에 눈뜬 후 자연이 전혀 새롭게 보이기 시작하는 것처럼, 너무 흔해서 귀한 줄 몰랐던 ‘싸우는 자’들의 비밀을 보게 된 나는 이 세계가 이전과는 전혀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다.

세월호, 송국현, 그리고 나

그리고 그때, 2014년 4월 16일 세월호가 침몰했다. 그게 무엇을 뜻하는지도 모르면서 하루 종일 뒤집힌 배에 사로잡혀 있었다. 그날 밤 야학 학생 송국현이 위독하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며칠 전 그의 집에 불이 났고 그는 전신에 화상을 입고 중환자실에 누워 있었다. 무언가 큰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은데 온몸은 마취된 듯 아무런 고통이 느껴지지 않는 불길한 밤이었다. 다음 날 새벽, 송국현이 죽었고, 가라앉은 배 안에 사람들이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세월호는 천천히 침몰했다. 2014년 4월 16일 오전 8시 50분이 아니라 알 수 없

는 어느 해 어느 순간 도처에서 시작되었다. 송국현의 집을 덮친 화마 역시 서서히 다가왔을 것이다. 2014년 4월 13일 일요일 오전 11시가 아니라 오래전 그가 세상으로부터 내쳐지던 무수한 순간들에서 시작되었을 것이다. 기업과 복지, 언론과 교육, 행정과 정치의 수많은 현장에서 사람들의 삶이 똑똑 끊어져 나갔을 때, 그것은 모두 하나의 말로 시작되었을 것이다. ‘어쩔 수 없잖아.’ 나도 알고 있다. 분노하지 않는 내가 눈감아 버린 폭력들을, 지난 수년간 무기력해진 내가 놓쳐 버린 삶들을.

4월 20일 새벽 진도에선 청와대로 가겠다는 유가족을 경찰들이 막아섰다. ‘내 새끼를 살려 내라’고 비를 맞으며 울부짖는 부모들과 그들을 막는 경찰의 모습은 너무나도 드라마틱하여 사람들은 필시 대단한 음모가 있는 것이라고 입을 모아 말했다. 그러나 나는 알고 있었다. 경찰은 원래부터 저랬다. 며칠 전 송국현이 자신은 ‘활동보조인 없이는 살 수가 없다’며 장애등급 재심사를 요구하러 등급심사센터에 찾아갔을 때, 공무원들은 ‘우리가 내린 판정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했다. 대단한 음모 없이도 며칠 뒤 송국현은 죽었다.

4월 20일 송국현의 영정을 든 사람들에게 경찰은 마치 총을 쏘듯 최루액을 정조준하여 발사했다. ‘한 명 한 명 정확하게 채증하라’는 경찰의 방송이 정확하게 들렸다. 민망할 만큼 자신의 일에 충실할 뿐, 그들에게도 대단한 음모는 없어 보였다. 내가 집회하고 퇴근하듯이 저들은 집회를 막고 퇴근할 것이다. 내가 빨리 퇴근하고 싶어 하듯 저들도 그러할 뿐이다. 나는 수많은 집회 안에 있었으나 실은 무력했다.

한때는 미친 듯이 싸웠으나 어느 순간 포기했고, 더는 분노조차 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밖에서 나를 보는 사람이 있다면 마치 내가 열심히 싸우는 것처럼 보였을 테고 나 역시도 그런 줄 착각하고 있었다. 하지만 사실은 내가 저 벽을 넘을 마음이 전혀 없다는 것을 경찰들만은 알아보았을 것이다. 그러니 저들이 존재할 명

분을 제공하면서도 그 파렴치와 기고만장에 눈감은 나는 그날 아침 경찰이 새끼 잃은 부모를 짓밟는 데에 일조했다. 저놈들의 손에 총을 쥐어 준다면 그것 역시 밟아질 것이다. 나는 영영 울고 싶었다.

그해 5월 18일, 침묵시위 ‘가만히 있으라’에 참가했던 시위대 100여 명이 경찰에 체포되었다. 나는 이동권투쟁 이후 10년 만에 유치장에 갇혔다. 10년 전 나는 억울해서 팔짝팔짝 뛸 만큼 화가 났었는데 그날의 나는 슬퍼서 눈물이 났다. 나는 진짜 죄인이었던 것이다. 경찰은 100명 모두에게 똑같은 질문을 했다. 용혜인을 아는가. 그녀는 침묵시위 제안자였다. 경찰은 10년 전에도 모두에게 똑같은 질문을 했다. 박경석이 시켜서 한 일인가. 그는 이동권연대 대표였다. 나는 묵비를 행사했다.

그날 경찰은 해산 명령을 열 번도 넘게 했고, 나는 그때마다 도망을 갈까 말까 고민했다. 시위대엔 아는 사람도 없었으므로 동지애랄 것도 없었다. 6시에 빠질까. 6시 10분에 빠질까. 고민하는 순간마다 용혜인이 울면서 소리쳤다. “언제까지 가만히 게실 겁니까!” 그것은 경찰을 향한 말이었는데 나는 나한테 하는 말처럼 들렸다. 전날에도 시위대 100여 명이 체포되었다.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었으므로 시위대는 잡혀 가는 것으로라도 저항하려는 듯 대부분이 자리를 지켰다. 체포가 시작되자 바퀴벌레 떼 같은 경찰에 둘러싸여 20대 초반의 앳된 여성들이 사지를 들러 하나둘씩 끌려 나갔고 자신의 차례가 올 것을 뻔히 알면서도 그들은 서로의 팔을 끼고 드러누운 채 목이 터져라 외쳤다. “5.18을 잊은 너희가 304명을 죽였다!” 그들의 저항이 눈부셔서 나는 도망칠 때를 놓쳤다.

체포된 다음 날 유치장의 창살 밖으로 대통령의 담화를 보았다. 대통령은 눈물을 흘리며 최종 책임은 자신에게 있다고 말했으나 우리는 여전히 갇혀 있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법적 구금 시간을 모두 채우고 나서야 풀려났다. 다섯 명의 유

치장 동기들에게 밥이라도 한 끼 사 주며 ‘도망 못 가게 붙잡아 주어 고맙다’는 말을 전하고 싶었는데 그녀들은 풀려나자마자 알바를 하러 급히 떠났다. 나는 쓸쓸한 기분이 되어 목동의 어느 버스 정류장에 홀로 앉아 오래전 대학을 떠나올 때 읽지 않고 지나쳤던 대자보를 떠올렸다. 경쟁, 효율, 신자유주의 반대 운운하던 것들이 경고했던 미래가 이런 모습이었을까.

버스에는 ‘교수도 주말에 수술을 하는’ 병원의 광고판에 ‘토요일에 수술 받고 월요일에 출근하라’는 문구가 보이고, 지나가는 어느 학원 버스의 옆구리에는 ‘선생님도 매월 시험을 보는 학원’이라고 대문짝만 하게 적혀 있었다. 아파트 상가를 통과해 집으로 오는 길엔 어느 보습학원이 원생들의 사진과 그들이 이 학원을 다니며 올린 성적의 분포가 게시되어 있었다. 보는 것만으로도 부끄럽다. 집으로 돌아와 유치장과 다름 바 없어 보이는 사회와 그 사회의 통계들에 대해 생각했다. 자살률 1위, 산재 사망률 1위, 교통사고 사망률 1위, 근무 시간 1위…….

그리고 보니 내 옆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사라져 갔다. 야학 학생이었던 이 아무개와 아는 장애인인 김 아무개가 아팠는데 치료를 제때 못 받아 죽었고, 나와 동갑이었던 장애 여성 활동가가 불이 나서 죽었다. 야학 학생이었던 장 아무개와 여행 중에 만났던 혈기 왕성했던 젊은 비장애인 남자와, 친구의 동생과 친구의 친구의 동생과 아는 아저씨의 아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친구의 동생이 산재로 죽었고, 아는 언니의 동생과 내 언니, 그리고 형부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다. 모두 지난 10년 사이 지근거리에서 일어난 일이었고 그들은 모두 지금의 나보다 젊었다. 보험회사와 상조회사와 경찰이 처리한 그 삶들은 제대로 정산되었다. 그 죽음들은 정당하게 대우받았다.

15년 전 세상을 향해 소리치고 손가락질할 때 그것은 아버지와 아버지의 사회를 향한 것이었다. 이기적이고 폭력적인 그 사회가 장애인을 죽이고, 여성인 나

를 억압하고, 비장애인인 나를 끝없는 경쟁 속으로 몰아간다고 소리칠 때 나는 죄가 없었다. 그런데 정신을 차리고 보니 이것은 나의 사회였다. 아버지의 유산을 물려받고, 아버지의 범죄를 물려받은 나의 사회다. 변화시켜야 할 것은, 소리쳐야 할 대상은 어느덧 이 사회를 체화한 나 자신이었다.

나와 내 가족, 내 친구들이 공모하고 침묵하고 포기해 버린 세상에서 15년 전 대자보가 말하던 어두운 미래가 적군처럼 세상을 점령하는 동안 나는 그 많은 죽음을 통합하지 못했고, 신문의 수많은 통계들을 내 삶 속에 대입하지 못했다. 그날 밤 집에 누워서 한참 동안 잠을 이루지 못하고 생각했다. 내 삶, 내 자리에서 매일 매일 매 순간 놓치지 않을 나의 운동에 대해서. 성명서에서 출발해 먼 허공을 향해 호통 치는 그런 운동이 아니라, 나로부터 시작해 나에게로 향하는 나의 싸움을 하고 싶다고. 그때 나는 끌려갈 것을 알면서도 끝까지 저항하던 그 옛된 여성들처럼 비로소 내 싸움의 당사자가 된 기분이었다.

나의 깃발

관객이 되어 ‘거대한 악’을 관람하는 듯한 시절이다. 기업이 돈만 쫓고, 관제센터가 관제를 하지 않고, 아무도 구조를 하지 않고, 선원들이 먼저 달아나고, 경찰이 기록을 삭제하고, 언론이 진실을 가리고, 정치가 가만히 있으라 하고, 학교는 그저 무력하다. 그들의 향연이 어마어마한 블록버스터처럼 스펙터클하다. 사람들은 감독을 찾는다. 감독은 7시간 동안 자리를 비웠다는 대통령인가. 진상 규명을 훼방 놓는 여당인가. 그럴 리 없다. 나의 배후가 용혜인과 박경석이 아닌 것처럼. 대단한 음모는 없을지도 모른다. 하루하루 우리가 포기한 것들이 거대하게 돌아왔을 뿐.

다시 광장에 섰다. 노들 바깥에 나와서 보니 노들이 제대로 보인다. 아무렇지

않게 했던 말과 행동들이 사실은 얼마나 귀한 것이었는지를 매일매일 깨닫는다. 그 시절 우리는 ‘냉담과 냉소보다는 희망이 더 정상적인 것으로 취급되는’ 혼치 않은 공동체에 속해 있었고, 그 방법으로밖에 배울 수 없는 것들을 배웠다. 덕분에 노들 바깥에서도 다양한 방법으로 싸우는 사람들을 만났다. 세월호 유가족을 만났고 형제복지원의 피해 생존자들을 만났다. 잘 들리지 않는 그들의 이야기를 기록하여 세상에 전하는 것을 자신의 투쟁으로 삼는 사람들도 만났다. 그들과 함께 몇 편의 글을 내놓기 위해 씨름하는 동안 다시 내 나침반의 바늘 끝이 떨고 있음을 발견했다.

어떤 시절 나에겐 욕망이 필요했고, 어떤 시절엔 수련이 필요했으나 지금 나는 깃발이 필요하다. 광장엔 무수한 깃발이 나부낀다. 모두들 세상을 바꾸자고 외치는데 각자 행진하는 방향도 다르고 해산하는 시각도 다르다. 어떤 이들은 청와대로 가자고 하고, 어떤 이들은 청와대로 가선 안 된다고 한다. 나는 다시 노들로 돌아왔다.

거대한 악이 ‘춤춤하게 결합된’ 비겁하고 무책임한 행동들이듯, 거대한 저항 역시 수많은 하루하루의 떨림과 다짐과 믿음과 약속으로 이어진다. 그러니 타인을 향해 양손 모두를 열어 놓기를, 누군가에게 손 내밀고 누군가가 내민 손을 잡아 주기를, 매일매일 나의 삶의 자리를 확인하고 그 위에서 나의 싸움을 멈추지 않기를, 긴장과 분열의 고통을 견디며 살아 있는 매 순간 맑은 정신으로 이야기 나누고 배우고 싸우는 것을 포기하지 않기를. 나는 그것을 노들로부터 배웠다. 그것이 바로 지금 나의 깃발이다. **악**